

#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기록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년은 비록 길지 않지만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였다.

공화국에서 펼쳐지는 이 경이적인 현실은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국가발전전략을 밝혀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산악같이 불러일으킨 경에하는 원수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현명한 평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 3월에 이르러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압살책동은 최절정에 달하였다.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정당당한 평화적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꾀고들며 불법무도한 《제재결의》라 는 것들을 조작한데 이어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소동을 벌여놓고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 2013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병진로선은 나라의 전쟁역력을 비강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강성

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공화국의 실정에 맞게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 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로선이다. 인류역사는 지금까지 1만 4 500여차례의 크고작은 전쟁을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적규모의 대전이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특히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공화국을 항시적으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의 위험성이 더욱 고조되고있는 오늘의 정세속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적인 환경속에서 마음놓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하는 선자적이고 중요한 문제인것이다. 또한 현 시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이어 어떻게 하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자위적국방력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보고를 하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

없이 강화하는것이아말로 더 많은 자금과 로력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집중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로선으로 된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발표되자 세계의 진보적언론

들은 《조선은 재래식무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 더 많은 자원을 경제발전에 돌릴것이다》, 《북조선은 핵보유국이다. 이 한 마디에 담긴 무한한 의미는 마술과도 같이 북조선에 무한한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줄것이다. 이제부터 시련과 난관은 있어도 끝이 짧고 일시적인것이 될것이다.》

고 감감을 표시하였다. 참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제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탁월한 평도력, 무비의 당력과 배장,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룩하신 특

수 있었다.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속에 지난해에 뜻깊은 전승기념일을 맞으며 장엄한 열병식이 거행되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이며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이 벌어지는 속에서 전진전진일군회의와 조선인민군 제8차 총대

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비롯

한 력사적인 대회들과 회의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체육인살림집, 류경구강병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송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는 수많은 창조물들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그뿐이 아니다. 드넓은 대지에 새로등관선정이 펼쳐지고 철령아래에 청춘과원이 솟아나 룡성변영향 공화국의 래일을 그려보게 하였다. 평양기초식품공장과 창성의 지방산업공장을 본보기로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진이 힘있게 추진되었으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국내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높이기 위한 종산의 동음이 더 높이 울릴수 있었다.

실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 새로운 병진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끝없는 번영과 안년을 담보하는 위력한 보검이며 세기를 두고 내려오는 반미대결전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이 땅위에 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안아올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지난 1년간의 격동적인 사변들과 힘이 없으면 짓밟혀야 하는 국제사회의 맹목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력한가를 때부로 뜨겁게 절감하고있으며 절세위인의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대고조의 전군을 더욱 다그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강 철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의 긴장이 나날이 격화되고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는 지금 공화국에서 최고사령관을 모시고 군인들의 류다른 사격경기가 련속 펼쳐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 교직원들의 권총 및 자동보총사격경기가 진행되며 이어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교직원들도 경에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사격경기를 하는 행운을 지니었다. 그런가하면 싸움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군중, 군단급단위의 장령들이 사격화지를 차지하고 자동보총을 쏘는 장면들도 인상적이었다.

더우기 최고사령관을 모시고 3월 한달동안에 3차례나련이어 진행되는 사격경기여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세거보면 공화국은 총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있는 나라이다. 군대가 총을 쥐고 나라를 지키는것은 물론이고 온 나라 인민들이 한손에는 마치고 낫과 펜을 들고 다른 손에는 총대를 쥐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그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북침전쟁책동에 대처한것이고 총대로 선군위업,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공화국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신념의 반영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력사는 총대와 함께 풀려온 력사이다.

## 조 선 의

《이 두자루를 밀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자루가 전부이지 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치서 200자루, 2,000자루, 2만 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시작되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아버지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을 밀친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조선민족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안아오셨었다. 그 정의와 애국의 총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렬 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전승의 축로를 터쳐올렸으며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미국의 가증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공화국을 자위의 핵억제력을 보유한 당당한 군사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었다.

그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남조선의 한 퇴직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이북의 선군정치

는 민족의 군대, 민중의 총대가 없어 굶어야 했던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며 자주와 존엄의 시대, 민중의 복된 세상을 열어나가는 인류리상의 정치방식이다. 북은 선군정치의 조국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국이다.》라고 서술하였다.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조미사이의 대결은 정의와 부정의간의 첨예한 대결이다. 미국은 이 시각에도 대양 건너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비롯한 대규모의 침략무력을 끌고와 함포를 쏘아대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미국이 마구 휘두르는 총과 대포에는 약육강식의 피비린내가 짙게 풍기고있다.

그 총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살륙과 전쟁이 그칠새없고 미국내에서도 잔인무도한 살인사건들이 무수히 터져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사람들이 한시도 마음편히 살지 못하고있다.

이와 반면에 공화국이 틀어진 총대에는 정의와 애국이 있다.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부강조국건설을 군사적으로 담보해주는 조선의 총대이다.

정의는 힘이 안받침되어야 지켜질수 있다는것은 고급

## 총 대

동서의 진리이다. 세계적으로 제1차 많은 군사장비를 가지고있고 주요 나라들의 군사비를 합친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해마다 확진하는 그 오만하고 청포탄의 조국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국이다.》라고 서술하였다.

공화국이 자위적인 조치로 중단거리 로켓 몇발을 날릴것을 가지고도 기겁하여 《위협》이니 뭐니 하며 탄리를 피우는 미국이다. 조선의 총대는 사상으로 만장악되여있다. 그 사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자주적권리와 참된 행복을 담보해주는 공화국을 목숨

을 바쳐 지키려는 애국의 마음이며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자주적 인민의 열적의 의지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닭알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닭알에 사상을 채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이 주장하는 사상제일주의이다.

자위적핵억제력의 위력에 사상의 위력을 더한 선군조선의 총대.

그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얼마전 선군령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류다른 사격경기는 총대로 사회주의, 인민의 세상을 끝까지 지키며 미국이 감히 덤벼들던 단맥에 요정내고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짓통개고야말 선군조선의 필적의 의지와 철의 신념을 과시한 뜻깊은 력사의 화폭이었다.

김 원 옥

## 눈 물 에 비 낀 정 의 세 계

국의 군대와 인민들이다. 공화국에서는 철부지 어린이들도 원수님을 만나 뵈으면 발을 동동 구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억제하지 못한다. 두해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돐을 맞으며 풍지족은 모란봉기슭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소년단대표들의 성대한 대회가 진행되었을 때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대회장에 나오시고 몸소 연설까지 하시자 아이들의 두볼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왜 경에하는 원수님을 만나 뵈면 저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것인가.

그 눈물 들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의 마음이 담겨있으며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줄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이 짙게 어려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고 운명가 미래도 다 맡길 위대한 태양이시다.

언제나 마음속에 인민을 간직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이다. 이경에서는 최근 몇해어간에만도 인민을 위해 수

많은 현대적인 창조물들을 일떠세워주시었다. 하나를 주면 열을 주고싶어하는 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인민을 위해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승마구락부도 크게 꾸려주시고 마식령지구에 멋들어진 스키장도 꾸려주시었다.

인민들이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궁전같은 병원에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승마구락부도 크게 꾸려주시고 마식령지구에 멋들어진 스키장도 꾸려주시었다.

인민들이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궁전같은 병원에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승마구락부도 크게 꾸려주시고 마식령지구에 멋들어진 스키장도 꾸려주시었다.

이런 령도자를 모시여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기쁨의

웃을 넘치고 세세년년 풀어진 꿈과 리상들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그러니 인민들이 원수님을 뵈오며 어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 눈물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신뢰심이고 그리움이며 세월이 간대도 그이 한분만을 따를 맹세와 의지의 분출이다.

눈물은 억지로 지울수 없고 더우기 진실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진실한 마음과 감정의 분출이다.

지금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을 함부로 걸고들며 《최악의 인권보모지》니, 《굴복사태》니 뭐니 하며 지껄여대고있다. 이것은 인민의 반석같은 지지에 떠받들려 있는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대조

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란한 경제제재와 봉쇄압살책동속에서도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과 리상이 실현되어가는 경이적인 화폭들이 날마다 펼쳐지는 조국이다. 이제 무슨 덕인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새로운 병진로선의 덕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갖은 비방중상을 일삼지만 실천으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있는 병진로선은 변할수 없는 우리의 억척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거레모두를 지켜주고 통일번영으로 이글이 로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갈것이다. 그 길에서 강성국가

의 새 아침도 밝아오고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도 펼쳐지게 될것이다. 중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심 경 옥

본사기자 리 경 율



경에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환호를 울리며 바다물에 뛰어드는 섬방어대군인들

### 송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위대한 한평생이었다.

주제90(2001)년 3월 어느날이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 보건부문의 한 일군이 삼가 선물로 올린 의학도서를 받으시었다.

도서의 제목은 《100년 장수예로의 길》이었다.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의학자료와 상식을 묶은 책에는 의과학학적 문제들과 건강상식들이 생활과 결부되어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었다.

도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게 장수자들의 생동한 생활체험자료를 구수하게 서술하고 그림이적한 반면 침한때다 성구와 속담도 적절히 배합하여 누가 보아도 흥미있게 되어있었다. 이 도서에는 이런 절절

### 《100년 장수예로의 길》

한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주제 83(1994)년 7월, 력사에 지울수 없는 크나큰 상성의 아픔을 남긴 대국상의 나날 어느 한 병원의 기술부원장은 피눈물을 삼키며 자신을 정책하다가 분명히 일어섰다고 한다.

우리 장군님을 잘 모셔 오시라. 장군님의 건강이자 우리모두의 운명이다. 장군님께서 일상적으로 건강을 돌보시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써올리자.

이 도서집에 그의 아들, 딸, 사위, 안해 등은 가족이 밟았고 도와나섰다. 한편의 도서에 온 일가의 지성과 심혈이 그대로 깃들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의학자강의 다함없는 소원이 담긴 도서의 결표지로부터내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아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의학자료와 상식을 묶은 책 《100년장수예로의 길》이 잘되었습니다. 그 책을 꼼꼼히 읽어 임력시켜 독자들이 어느때든지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장수를 절절히 바라는 인민의 념원이 깃든 책이었던 장군님께서서는 그 책을 먼저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었다.

자신의 건강은 조금도 돌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건강과 장수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쓰시는 장군님이시었다.

그이에게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었다. 그이의 가장 큰 기쁨과 생의 락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복된 생활을 보시는 그때였다.

본사기자